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8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부령을 제정】

국민경제자유회의는 지난 6월 16일(목)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인천시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03.10), 동북아물류 중심 세부시행계획(04.10) 수립 후 종합 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인천공항 제2연륙교 착공식 행사에 즈음하여, 본격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허브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던 현안들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동북아 물류 공동번영과 우리함안의 성장전략'에 대해 보고하면서 '일본행 다국적 통합 집하배출 모델'과 '한·중 통합 물류협력 모델'을 제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과 속도경쟁도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쟁도시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신항 배후 부지 22만평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추가 21만평을 2008년 완공해 부산지역 배후부지를 원활히 공급키로 하는 한편 부산신항 컨테이너세를 폐지하는 등 신항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인천 영종지구 자유무역지역(60만평)에는 우수 항공물류기업을, 화물터미널 지역(33만평)에는 4대 특송업체를 비롯한 외국항공사 유치에 항공물류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남 충청권 등 국토 서부축 물량을 유치하고 배후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물류허브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회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조기 추진하고 올해 8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부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MBA 수준의 물류전문 대학원 개설과 관련, 금년내 선정을 거쳐 내년 9월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는 한편 물류기본법, 물류시설총괄법 제정 등을 통해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가 보고한 동북아 물류협력 모델과 부가가치 물류모델은 새로이 제시된 전략이므로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거쳐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물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부가

가치 물류, 물류 관련 산업 및 제도의 정착과 여러 부처로 나뉜 물류 관련 업무의 종합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류기획단 구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삼영물류, T-Commerce 사업을 위한 아이디지털홈쇼핑 주주사로 참여】

삼영물류(대표 이상근, www.sytpl.com)가 T-Commerce 사업자인 ㈜아이디지털홈쇼핑 주주사로 참여하였다.

T-Commerce란 TV를 시청하다가 시청자들이 맘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리모컨으로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쌍방향 TV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TV홈쇼핑의 사용편리성과 인터넷쇼핑의 양방향성 장점이 결합된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사업이다.

아이디지털홈쇼핑은 지난 3월 방송위원회로부터 CJ홈쇼핑, GS홈쇼핑등과 함께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삼영물류를 비롯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인터넷파크, 국내 최대 복수유선방송 사업자(MSO)인 태광산업등이 주주사로 참여하여 법인이 설립되었다.

올해 시범방송을 거쳐 내년부터 쌍방향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홈쇼핑 콘텐츠와 소비자의 실생활에 유익한 홈쇼핑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영물류 관계자는 "T-Commerce 사업이 양방향광고를 포함하여 2009년 1조 4천억원의 시장규모가 예상(삼성경제연구소, 2004.01) 되는 만큼, T-Commerce 에 수반되는 물류사업을 미래의 핵심사업중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영물류는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남동산업단지공단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자로 △남동산업단지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물류비절감을 위한 무료 컨설팅부터, △ 입고, 보관 및 재고 관리, 물류기공, 출고, 배송, 물류정보의 Feed-back에 이르는 3자물류서비스, △ 인터넷으로 상품의 입고출고, 재고, 인수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물류정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물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전략으로 △지표관리 시스템(SLA, CSI, KPI)과 △5S 운동, △서비스 개선 결의대회, △사업장 평가 시스템, △물류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등의 물류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에 힘쓰고 있다.

【CeMAT 2005, 세계적인 물류 자동화 전시회로 거듭나】

국제 물류 자동화 전시회 CeMAT 2005가 10월 1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독일의 하노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새로운 모습의 CeMAT은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열리며, 물류취급과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는 박람회라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intralogistic (내부물류자동화)"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산업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자동화 단계를 거쳐 이동하는 상품의 사슬구조를 잘 반영해 준다.

"Intralogistic(내부물류자동화)"라는 말은 또한 상품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 유통업체, 공항, 항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을에 열리는 CeMAT 2005는 이미 80,000㎡의 부스 면적이 예약된 상태이며, 1,000여 개의 업체들이 출품할 예정이다.

CeMAT은 Hannover Fair의 여러 전시회 중 하나로 개최되면서, 물류처리기술 분야에 관한 세계적인 마케팅 장소라는 명성을 굳혀왔으며, 이제Hannover Fair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박람회로 발전하기까지 이르렀다.

새로운 모습의 CeMAT은 물류자동화 산업 분야의 여타 전시회가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시장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CeMAT은 모든 종류의 신업을 아우르며, 출품 업체들은 그들의 기술혁신과 상품발전을 방문하는 전문가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그들 업체에서 최고의 출품단을 선별하여 이 박람회에 파견하게 된다.

【대한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아·태지역 최고"】



대한항공(www.koreanair.co.kr) 인천공항 라운지가 세계적인 공항 라운지 서비스 제공 회사인 영국 프라이어리티 패스(www.prioritypass.com)社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라운지"에 선정됐다.

프라이어리티 패스사는 80개국 245개 도시의 450개 공항 라운지와 제휴를 맺어 전세계 100만 회원들이 항공사나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라운지 시설, 안락함,

실내분위기, 직원 서비스 태도 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회원 대상 자체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콘티넨탈 항공의 휴스턴 공항 라운지가 2005년 최우수 라운지에 선정됐다.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라운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5개 라운지 중 최우수 라운지로, 유럽지역은 스위스항공의 바젤 공항 라운지가 선정됐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공항 라운지 이외에도 김포공항 라운지(4위)와 제주공항 라운지(7위), 간사이공항 라운지(8위)가 10위권내에 포함돼 라운지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L-Net '비전 2020' 설명회 개최】

해운항만 물류정보화기업인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KL-Net 대표 박정천)는 지난달 3일 아미가호텔에서 KL-Net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해운물류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KL-Net Vision 2020'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과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 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송정섭 한국복합운송협회 회장, 권행석 세방기업 부사장, 조금제 (주)중방 부사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 등 관련 단체 및 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 새롭게 출발하는 KL-Net의 희망찬 미래를 격려했다.

박정천 대표이사의 감사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의 격려사에 이어 KL-Net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KL-Net 비전 2020"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KL-Net은 참석자에게 KL-Net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대표는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KL-Net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창립정신과 사명(社命)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면서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KL-Net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KL-Net은 대한민국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대표기업으로서의 확고한 기반 아래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물류IT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직원이 결의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한상물류경제연구 중국물류업무 개시】

한상물류경제연구소(소장 한상원)이 오는 7월 7일부터 중국 물류업무를 개시하면서 연구소를 중국으로 옮긴다.

한상물류경제연구소는 앞으로 중국물류 정보, 대중국 투자 정

보, 중앙아시아와 연계되는 내륙 新실크로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 물류관련 위탁업무 대행, 인력제공, 중국 산업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상원 소장은 "중국물류는 아직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 모습이지만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향후 양국간 물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연구소를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물류경제연구소는 중국물류정보 제공사업을 회원제로 운영키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중이다.

*문의 : 02-3463-7792, 86-138-1232-0176(중국), sohan77@naver.com

【FedEx, 2005 아시아 화물 및 공급망 어워드 (AFSCA) 에서 최고물류 기업상 수상】

세계 최대의 항공 특송회사 FedEx(www.fedex.com, 한국대표 이사 데이빗 커닝햄)은 올해로 19번째 열린 '아시아 화물 및 공급망 어워드 2005(AFSCA: Asian Freight & Supply Chain Awards)' 에서 최고물류 기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FedEx는 또 "북미부문 최고 항공화물 서비스 기업", "최고 화물 항공사", "항공화물부문 최고 물류서비스 기업", "프로젝트 화물 부문 최고물류서비스 기업" 등에서도 수상했다.

FedEx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장 데이빗 커닝햄(David L. Cunningham)은, "FedEx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물류 서비스 회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우리의 탁월한 네트워크로 아시아 고객을 세계경제와 연결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계기로 FedEx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FedEx는 이번 시상식에서 '북미부문 최고 항공화물 서비스 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화물 부문 최고물류서비스 기업', '최고 화물항공사'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아산에 부품수출물류센터 설립】

현대자동차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벌이 충남 아산에 자동차 부품 수출물류 거점인 아산CKD센터를 구축했다.

글로벌은 현대차 북미공장(HMMA)의 물류 서비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서해안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이며 물류 요충지인 아산지역에 166억원을 투자해 대지 2만평, 건평 3200평 규모의 아산CKD센터를 구축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CKD(Complete Knock Down)란 기업이 무역장벽 회피, 관세 절감, 노동비 절감등을 위해 해외 현지공장서 완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 공정을 위해 부품형태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글로벌은 자동차 부품 수출물류 수혜에 최적화된 아산 CKD 센터에서 검수·검사, 입고, 포장, 선적 및 운송 등 전체 물류업무를 일괄 수행하며 이를 CKD 웹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또 운송품질을 유지하면서 포장효율을 극대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포장사양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HTH, 모바일 택배정보시스템(Mobile SES) 구축 완료】

HTH(대표이사 김규상, http://www.samsunghth.com)는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1,500명 배송사원들에게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100% 지급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모바일 택배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HTH의 모바일 택배정보시스템은 무선인터넷망과 PDA를 활용하여 택배차량의 위치 및 배송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의 활용으로 물류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배송사원, 고객, 대리점 및 본사가 모든 물류정보를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고객 신뢰도 향상과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화가 기대된다.

HTH의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택배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앞으로 축적될 배송경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택배업계 최초로 배송사원별 자동배송경로 생성기능을 포함하는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WMS와의 연계를 통한 Real-Time SCM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E컨설팅, 어시스트코리아에 물류정보시스템 (EXceed WMS) 공급】

한국EXE컨설팅(대표 김형태, www.execonsulting.com)은 의류 전문 물류기업인 어시스트코리아(대표 양대환, www.assist-korea.co.kr)에 세계 최고의 SCE(Supply Chain Execution)솔루션인 EXceed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어시스트코리아는 1994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의 의류 전문 물류 아웃소싱 기업으로, 검품·납품 대행 업무 및 상품 관리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한다. 2004년부터는 내수 상품으로 영업력을 확대, 기존 곤지암 물류 센터 외 지속적으로 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현재 총 4개의 수도권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어시스트코리아 관계자는 "사업 영역 확대와 멀티 물류 센터의 통합 운영 필요성 및 의류물류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EXE컨설팅사의 물류센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두었

보다 국내 의류 물류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센터간의 통합 정보 공유, 복잡한 의류물류의 아이템별 재고관리와 트래킹을 실현하고, 제품 포장·태그 부착 등 부가 서비스의 작업 효율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 고객대응력 및 서비스 향상 등의 다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X컨설팅사의 WMS를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공군, 신무기체계 자산관리시스템 사업 수주】

KT SI사업단(단장 임덕래)은 전자태그(RFD) 적용 선도 시범사업의 일환인 공군 신무기체계(F-15K) 자산관리시스템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공군 신무기체계(F-15K)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군이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는 최첨단 전략 기종인 F-15K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전자태그(RFD)를 부착,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수품 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KT SI사업단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동으로 향후 7개월간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 RFD 기술 효율성을 검증하는 한편 물자관리 및 군수 분야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KT SI사업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RFD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인 RFD를 활용, 수익모델 창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BEA시스템즈, 해양부에 RFID 미들웨어 공급】

BEA시스템즈코리아(대표 김용대 www.bea.co.kr)는 해양수산부의 전자태그(RFD) 기반 해운물류 효율화 사업에 '웹로직 서버'를 공급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류관리 부문에서 가시성을 확보,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을 현실화하고 수출입 화물의 지능화된 관리, 수출기간 단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웹로직 서버는 리더기가 태그에서 읽어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필터링하고, 그 정보를 재고 관리나 다른 업무에 연계시키는 '정보처리 및 흐름 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이광훈 BEA시스템즈 이사는 "이번 해양수산부에 RFD 관련 솔루션을 공급함에 따라 RFD 영역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NT로지스틱스, 삼성SDI와 물류계약 체결】

세계적인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업체 삼성SDI 브라질이 세계적인 물류특송사 TNT 로지스틱스와 5년 간 물류계약을 체결했다고

TNT코리아가 3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85억원(6백만유로)정도로, 이 계약 체결로 TNT로지스틱스는 원자재부터 완제품 배송까지 삼성SDI 공급망의 전 과정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TNT로지스틱스는 70만유로의 오퍼레이션과 올 상반기 삼성SDI의 첫번째 담당기간 동안 오퍼레이션과 테크놀로지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파트너십에는 최소 90명 가량의 인원이 투입된다.

길레르메 바스토스(Guilherme Bastos) 삼성 전략자원운영 매니저는 "이번 첫번째 파트너십 기간 동안 삼성 SDI의 생산 과정이 최적화되고 30% 정도의 획기적인 물류 비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NT로지스틱스는 전략적으로 하이테크 첨단 기술을 전략적 사업 강화 분야로 삼고 있다.

【기술표준원, 무선인식 국가표준 정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무선인식(RFD) 용어 등 RFD 국가표준(KS) 12종의 원안작업을 완료하고 산업계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7월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10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10일 매리엇 호텔에서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FD 국제·국가 표준동향 세미나'를 열고 국가표준 12종의 내용과 RFD 산업화를 위한 국제·국가 표준화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안은 용어 2종, RFD 리더-태그간 통신규약 6종, 데이터 규약 2종 등 12종으로 RFD 핵심분야에 대해 국제표준에 기반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될 국가표준 핵심 중 하나는 그간 산업계에서 무선인식, 무선식별, 전파식별, 전자태그, 전자칩, 전자표찰 등으로 불렸던 RFD의 한글 용어이다.

표준원원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RFD'의 표준 용어로 '무선인식'을, 'RFD 태그'의 표준용어로는 '무선인식 태그'('전자태그'도 수용)를 제시했다.

【부산에 상설 '유비쿼터스 체험관' 설치】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건설을 추진 중인 부산시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 첨단 관련 기술을 한 곳에 모은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설치한다.

부산시는 2일 "APEC정상회의 기간에 벅스코(BEXCO)에 마련돼 각국 정상과 각료, 경제인 등에게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과학,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을 과시할 'U-체험관'에 참가하는 부산시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기업들의 전시물을 모아 '부산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EC 1차 정상회의 장소인 벅스코에서 설치돼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될 'U-체험관'에는 정보통신부의 'U-드림관'을

비롯해 부산시의 해양수산부의 'U-포트관' 교육부의 'e-러닝관', 산업자원부의 '전자무역관', KT와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홍보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U-드림관' 및 'U-포트관', KT의 기업홍보관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유비쿼터스 관련 전시물들을 모아 '부산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만들 예정이다. 백스코에 300평 규모로 설치될 이 체험관에는 부산이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부산 U-비전' 코너와 전자태그(RFID) 등 관련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집약한 기술코너,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기술활용 제품을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체험' 코너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대한통운, 킨텍스와 단독 택배계약 체결】

대한통운(대표 박영욱)이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과 단독 택배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취급점을 개설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우체국 등 기타업체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계약으로 입주한 이 취급점은 킨텍스 비즈니스센터와 택배취급계약을 맺고 국내택배 서비스와 UPS를 통한 해외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통운은 이외에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구내에 택배 취급점을 개설하는 등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생활속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대한통운은 각종 특수품 운송의 노하우를 살려 지난달 30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모터쇼 물품도 운송을 맡았다. 대한통운은 국립박물관 유물 이전, 미술품운송, 경주용 말 운송, 서울에어쇼 비행기 운송 등 각종 특수품의 운송과 무진동차량 등 장비를 갖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시회 물품등의 운송통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대한통운은 한국건설기계전, 서울국제종합전기전 등 이후 있을 전시회에서도 취급이 어려운 물품들을 대상으로 운송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S산전, RFID 리더기 양산라인 준공】

LS산전은 지난 5월 10일 충남 천안공장에 국내 최초로 RFID(전자태그) 전용테스트센터와 RFID 리더기 양산라인을 준공,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20여명 규모의 RFID 전용테스트센터는 리더기의 품질과 성능을 전자적으로 테스트하는 기능을 하며 110여 평 규모의 리더기 양산라인은 연간 10만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 생산라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S산전은 연말까지 전자태그 양산라인을 구축한 뒤 2007년까지 물류분야 태그 전문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국내 최

대 태그 전문생산업체로 자리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또 1~2년 내에 센서 태그 개발 및 유비쿼터스 기술 확보, 초저가 태그 생산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유비쿼터스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정주환 RFID 사업부장은 "자체 분석한 국내 RFID 장비 시장규모는 올해 약 447억원, 2007년 3천900억원, 2010년 1조1천56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RFID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7~2008년까지 세계 최고 RFID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포장 KS 규격화 추진】

택배 포장상자가 KS규격화돼 물류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택배기업의 물류비 절감,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민·연·관 공동으로 '택배물류 포장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의체는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 CJ 등 상위 11개 택배물류기업과 포장분야 전문연구소, 기술표준원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가공식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등 3개 분야에서 택배포장 상자 크기, 저운유형 포장상자 강도기준, 택배포장 취급 및 제품 표시 방법 등에 대한 KS 규격이 올해말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택배산업은 매출액이 지난 2002년 1조2천억원에서 올해 8조7천억원을 형성하는 등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세계 택배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독일의 DHL 500억달러, 미국 페덱스 200억달러 등이다.

【물류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된다】

의·치의학·법학에 이어 경영(MBA)·금융·물류 분야도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고 무역협회나 경제단체, 대기업들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추진 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의·치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국제 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경영(MBA)·금융·물류 분야도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학부 중심에서 전문대학원으로 바꿔 현행 경영대학/학과의 전환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통합증권거래소 등 경제단체나 대기업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고 외국 경영 전문대학원의 국내 진출 여건도 마련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위해 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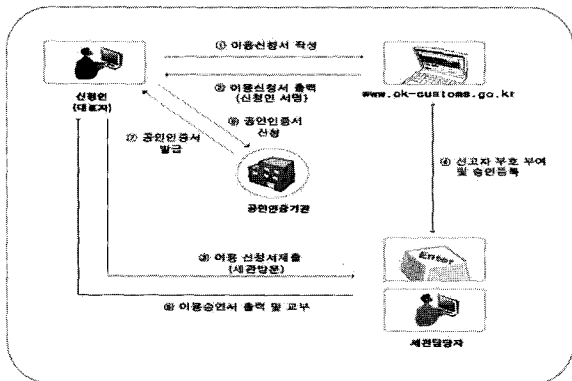
령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민간전문가등 30명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차관급 이 본부장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IT, BT등 첨단분야와 의학, 법률, 경영, 물류등 고급전문 서비스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설립신청 접수 및 심사,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이나 2007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에 맞는 중견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 (NUR)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인터넷 수출신고 전면 확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비합금 대상물품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합금대상물품까지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관세청시스템(www.ok-customs.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1년여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괄전송방식(Uploading) 개발 등 기술적으로도 많은 보완을 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터넷 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수출신고의 80%에 해당하는 합금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 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터넷 수출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가 병행 실시된다. 수출업체는 인터넷방식과 EDI방식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는 수출신고에 이어 수입신고 및 환급신청까지 인터넷시스템을 확대하여 인터넷포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물품제조절차 인터넷 신고 추진】

올해말부터 보세공장의 물품제조 절차에 대한 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세공장의 반출입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이 다른 공장에서 작업하고자 할 경우 작업장소 등록, 작업허가, 물품 반출입신고, 작업완료 보고 등을 세관 방문없이 공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방문해 작업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해 작업한 뒤 다시 세관을 방문, 원료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세관근무일이 아닐 때는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물품 작업절차, 다른 보세공장에서의 추가가공 절차, 선박 등 거대중량 구조물의 일시 보세공장 밖 장치절차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물류·유통도시 조성 7조8천억원 투자】

대전시는 선진 물류·유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10년간 5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7조8천853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수립한 도시물류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물류비전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물류시설체계 및 간선망 정비를 위해 북부지역에 10만평 규모의 화물터미널 1곳과 권역별로 6곳에 6천200평의 지구 물류센터(보관·집배송센터)를 각각 조성하고 갑천변 도시고속화 도로 등 도시내 물류간선망 정비 3개 사업과 대전-당진 고속국도 건설 등 지역간 물류간선망 건설 확장 11개 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또 물류정보와 사업으로 도시물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화물자동차 콜센터 시범운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RFID(전자태그) 시

범사업 등 3개 사업과 단위 물류지구 개선사업으로 중앙시장 및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사업, 까르푸(문화점) 앞 도로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을 각각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 효율화 사업으로 물류 공동화 및 표준화, 화물자동차 통행 및 수요관리 등 3개 사업을,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개 권역별 6만7천평에 2천700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신 운송수단(천연가스·전기 화물자동차, 3륜 전기자전거) 도입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년동안 물류시설체계 개선사업에 1천533억원, 물류간선망 개선에 7조6천710억원, 물류정보화 사업에 11억원, 단위물류지구개선사업에 13억원, 화물운송 효율화에 1억원, 친환경물류시스템 구축에 585억원 등 모두 7조8천8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5조9천633억원(75.6%), 시비 3천577억원(4.7%), 민자 1조5천643억원(19.7%) 등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이 물류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물류흐름 더욱 빨라진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항공화물의 물류신속화를 통하여 인천공항을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물기 입항과 동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하역완료 허용시간을 입항후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등 항공화물 처리절차 혁신방안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에 화물기 입항전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일부 화물(2004년 전체의 약 5%)의 경우 적하목록 정보가 항공기 입항후에 화물과 같이 실려 오는 서류에 의해 입수되어 전산입력후 적하목록이 제출되므로, 전체 화물의 하역작업 및 통관이 지체(평균 약 3시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통한 물류신속화를 위해 항공기 입항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정보 입수가 가능한 화물에 대해서 입항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해서도 일단 하기하여 항공사 창고의 일정 장소에 별도 장치한 후 추가로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하목록 제출 및 세관검사 등 관리절차를 이원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의 적기통관 등 항공화물의 물류 흐름이 신속화 되어 수입화주 및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사 등 물류 관련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북지원 비료 수송 마무리】

대북지원 비료 20만톤 가운데 해상운송분 19만톤 수송작업이 지난 6월 19일 마무리 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대북지원 비료 수송을 위해 마지막(22항차)으로 여수항에 입항한 TRUST ACE호(8,208톤)가 비료 1만 1천톤을 싣고 18일 오후 10시께 여수항을 출항,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 비료 선적작업은 지난달 22일부터 광양항, 울산, 군산, 포항항에서 이뤄졌으며, 여수항에서는 북한 선박 2척(보통강호, 룡강2호)등 3척이 입항, 3만 3천톤이, 광양항 낙포부두에서는 우리나라 선박 4척이 입항해 4만8천700톤이 각각 북한에 보내졌다.

이번 비료수송은 북한 선박(10척)이 투입돼 남북해운합의서가 정한 해운 항로대로 처음 운항하는 등 2002년 체결된 뒤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이 합의서가 시험 적용됐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육로운송분 1만톤은 지난달 21~28일 북한에 지원됐다.

【정부, 민노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노·정 협약 체결】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6월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노·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노·정 협약은 지난 21일 체결된 정부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의 노·정협약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노·정이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교육, 보건, 행정,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이전에 착수하도록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이전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산 매각 등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고, 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층분이 협의하여 대처한다.
- ④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경영평가에서 불이익

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적극 강구한다.

● 정부는 이전 이행협약 체결(주무부처-이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시 공공기관과 해당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며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사안에 대하여 정부(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연맹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한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37개기관의 노조가 소속되어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주요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 절차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시도간 협약(5.27)에 이어 양대 상급노동단체와의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합의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인사동정]



>>부임
이 성 권 수송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알림]

- 2005년 상반기 한국물류협회 신규 가입 회원사

- ▶(주)대상 / 김용철 대표이사
157-2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52-1 / Tel. 02)2220-9436
- ▶(주)원삼물류 / 설유석 대표이사
449-872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547-2 / Tel. 031)332-8017
- ▶(주)수성 / 김 정 배 대표이사
405-8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3-3 123블록 4롯데 / Tel. 032-818-5160

- ▶대주중공업(주)/ 임 현 원 대표이사
121-73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13층 / Tel. 02-6358-5703
- ▶티엔티 익스프레스 / 김 중 만 대표이사
100-180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7층 TNT / Tel. 02-319-4422
-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 강 현 옥 대표이사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 전라북도청내 / Tel. 063-280-3295
- ▶애경산업 / 안 용 찬 대표이사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3 / Tel. 02-818-1721
- ▶세방기업 / 최 인 식 대표이사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세방빌딩 본관11층 / Tel. 02-3469-0503
- ▶(주)로고 / 이 중 훈 대표이사
487-81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천리 642-17 / Tel. 031-541-3838
- ▶대경정공 / 김 호 경 대표이사
701-230 대구시 동구 동호동 109-14 / Tel. 053-964-6363
- ▶KGB(주) / 박 해 돈 대표이사
464-883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11-1 케이저비빌딩 / Tel. 031-741-1577
- ▶KGB택배 / 박 해 돈 대표이사
701-230 대구시 동구 동호동 109-14 / Tel. 053-964-6363
- ▶아이리버 / 양 덕 준 대표이사
135-73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프양재4층 / Tel. 02-3019-6504
- ▶천일정기화물자동차 / 박 재 익 대표이사
100-161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48-3 연세봉래빌딩 8층 / Tel. 02-3461-1001
- ▶인천공항공사 / 박 근 해 부사장
400-700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95번지 / Tel. 032-741-2276
- ▶(주)GS리테일 / 허 승 조 대표이사
150-096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번지 / Tel. 02-2006-2472
- ▶(주)로테크 / 배 기 주 대표이사
429-93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9-1 시화공단 3마 617호 / Tel. 031-434-5656
- ▶한국EXE건설(주) / 김 형 태 대표이사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세방빌딩 신관 5층 / Tel. 02-562-7800